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16차, 체계론, 케노이시즘 비판 , 그리스도의 인간성 , 골로새서 1:15-20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6, 체계학, 케노이시즘 에 대한 비판 , 그리스도의
인간성, 골로새서 1:15-20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다섯 가지 역사적 증거를 다룬 후, 우리는 소위
칼빈주의 외적 증거 , 즉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완전히 성육신하셨지만
나사렛 예수 밖에 완전히 남아 계셨는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케노시스와 정경 이론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데이비드 웰스, 케노시스 관점에 대한 비판을 배우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비평가들에게 토마시우스 와 다른 사람들이
제안했듯이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를 하나님의 본질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힘과 지식이 줄어든 신(소문자 g)은 성경의 신이 아니다.
포사이스는 토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비판의 힘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회피가 성공적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성경은
어디에도 신성에 환원 불가능한 최소값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권장하지
않으며, 신성과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행위와 특성은 단순히 선택 사항일
뿐이라고 한다.

둘째, 케노시스 이론은 모두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의 붕괴를 암시했습니다
. 일부 이론가는 온건한 용어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고, 다른 이론가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짧은 길든 일정 기간 동안 성육신한 아들의 신성한 자의식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성은 단순한 잠재성으로 축소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잠재성은 신성한 수동성과 동의어가 되었고, 신성한 수동성은 이론적으로만 신성한 무능함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연적인 수동성은 작동하는 무능함입니다.

많은 케노시스 이론에서, 이것은 인간 예수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게 변함없이 할당된 큰 역할에서 사실상 인정되었습니다. 성령은 소멸되고 약화된 말씀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육신 기간 동안 신성한 회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인격은 신격에서 휴가를 떠났고, 삼위일체는 기껏해야 이원론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셋째

, 신성의 수축은 필연적으로 그 사랑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정경 이론의 주된 목적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AB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도록 움직인 사랑은 단번에 스스로를 소모했습니다.

그 결과, 성육신에 대한 사랑은 수년간 잃어버렸지만, 마침내 예수는 자신 안에서 그 첫 번째 갈망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말씀은 예수의 삶의 대부분 동안 의식을 잃었고, 그 상실에는 정경 이론이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넷째, 대부분의 정경적 견해는 신격이 인간으로 개종하게 했고, 아들은 변화의 대상이라고 가정하는 니케아의 금지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저는 칼케돈이 아들이 변화의 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성의 심각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로고스가 신성한 특성을 벗어던지고 인간적 자아에 자신을 주입하거나 인간적 본성을 취했다면, 합쳐진 것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고스가 인간적 차원으로 축소되었다면, 인간과 결합할 때

불화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일체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축소된 로고스와 인간 예수의 인간적 중심은 단순히 동일한 자기의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순되거나 다른 요소의 합성이 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하나였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만큼 예외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정경 이론은 굴욕의 요소를 잘못 배치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우리의 가난을 위해 자신의 부를 포기하신 분의 성육신의 대가를 강조한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과장하여, 무의식적으로라도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뭔가 타락하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5-11의 강조점을 유지하려면 굴욕의 요소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의 속죄, 그의 죽음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타락하고 비난받을 만한 것은 그가 결합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가 지신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비우셨지만, 구속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콜로새서 1:15-20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성육신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신성한 아들의 인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그는 인간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인간 본성,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증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증명합니다. 예수가 인간적인 약점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인간성도 증명합니다. 그는 피곤했고, 목마르고, 유혹을 받았고, 위험을 피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인간성은 그가 인간적인 감정을 보이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화가 났고 슬퍼했으며, 친구 나사로에 대한 사랑을 보였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그의 인간적 경험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태어났고, 그의 잉태는 기적적이었지만, 그의 탄생은 우리의 탄생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52에서 그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52에서, 저는 그것을 망쳤습니다. 그는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즉, 성육신한 아들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랐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런 일들은 제 학생들이 고백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 그들은 성경을 믿고, 누가복음 2장을 믿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시작했고, 자유주의와 컬트의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호할 필요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예수의 완전한 인간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육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니요, 그 자체로는 아니지만, 신인 (God-man)은 그의 인간성 측면에서 육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예수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육신한 말씀으로서 그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옳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성장 영역은 그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신성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에 중요합니다.

그의 십자가형과 죽음 역시 인간의 경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리지만,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따라, 죽음을 경험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아버지와 인간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오, 영원 전은 아니었지만, 지상 사역에서는 아버지와 인간적인 관계를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는 신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속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 종속주의와 기능적 종속주의 또는 경제적 종속주의의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28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책인 히브리서에서는 아들이 완전해지는 언어를 세 번 사용합니다.

오, 이거 우리를 불안하게 하네요. 그리고 그가 완벽하게 된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제 말은, 그는 신이잖아요.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는 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결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2장, 10장, 히브리서 5장, 8장, 9장,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함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아들의 인간성과 관련하여 아들의 전체 인격에 속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논증에서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1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신약전서 전반에 걸쳐 발견됩니다.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하여 20번이나 더 완전한

목록을 가지고 있을 때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죄가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이고 왜곡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 또는 신학적으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우두머리 신학에서 이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도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두 번째 아담과 맞붙은 것입니다.

둘 다 죄가 없었지만, 그 중 한 명만이 죄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에 관한 한, 세 곳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인간성에 대한 증거, 실례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이 있는 세 군데, 제 말씀입니다, 생생합니다. 교부들은 이런 곳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을 어겼습니다.

예수의 인간성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인간성을 폄하함으로써 그의 신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형상으로 존재했던 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참으로 종, 노예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성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성 역시, 성 안셀름이 옳았습니다. 오직 신인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계신 하나님, 인간 본성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유혹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완전한 인간성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이 어려운 구절들도 포함됩니다. 광야에서의 그의 유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영화를 볼 때 당혹스러워하는 방식으로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어떤 특정 영화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고, 진짜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성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악마가 그를 놀리던 바로 그 유혹은 그가 신성한 힘을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신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이 성경을 그런 의미로 왜곡하더라도 말이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신성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고 때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피난처를 찾고 악마와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를 세 번 인용했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는 그를 경배하라.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한다.

둘째, 아버지는 예수께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사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미 속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는 정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Calvinisticum)를 고백하더라도 삼위일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 밖에 남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는 완전히 육신을 입습니다. 오, 그 해석은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면서 그는 신성한 힘을 유지하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탄의 간청을 듣고 아버지의 뜻 밖에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오늘 친구가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그는 항상 오직 아버지께만 순종했고, 거기에는 신성한 힘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오, 어서, 그는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네, 그는 사용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 오, 그의 적들은 혐오감을 느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불신을 이해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보이지 않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기꾼이라도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는 사기꾼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침대를 치우고 걸어가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론, 토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는 때때로 아버지의 뜻일 때 초자연적인 지식을 행사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굴욕 상태에서 아들이 재림의 시간을 아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한 지식을 반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이 아닐 때 신성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겡세마네.

나에게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겡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공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든 아니든 주님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물러선 것은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에게 전례 없는 재앙이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성한 사랑, 삼위일체적 일치와 영원을 위한 교제에서 성령을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번 이상, 아버지는 아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깨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교부들과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존 칼빈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부른 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포에나 입니다. *sensus* , 감각의 처벌, 신의 분노를 느끼는 것. 그는 십자가에서 신의 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마셨다.

그리고 포에나 다마니 ,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의 부르짖음에서 다윗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끔찍한 박해를 받은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압살롬]에게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끔찍하네요. 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의 아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나의 신, 나의 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올바르게 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겻세마네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성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곳, 유혹, 날을 알지 못하는 것, 겻세마네를 지키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사용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구절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순수하고 완전한 인성에 대한 우리의 구절은 골로새서 1:15-2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 1장, 빌립보서 2장, 히브리서 1장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오, 세상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훌륭한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과 함께,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인간성을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15-20. 여기서 핵심은 18절에서 모든 일에서 그가 뛰어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언어입니다.

모든 것은 그가 최고이거나 탁월하거나 창조물보다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15절에서 17절. 그리고 그는 교회를 포함한 새 창조물보다 최고이거나 탁월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위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의 머리, 곧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 창조,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는 최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거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으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조점은 실제로 그의 신성한 본성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위대한 신학적 주제들과 나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은 그저 울림에 불과합니다. 신성,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저는 히브리서 1장을 선택했는데, 5가지 역사적 증거가 모두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골로새서 1장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오,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성육신은 15절에서 암시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의미는 그가 보이는 형상, 보이는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보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위에 그를 치고 모세에게 그의 등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한 본성과 영광을 아주 조금 엿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는 유일한 신이 그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 보이는 계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그의 성육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성육신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 위에 가장 높은 자, 만아들이시며, 그가 만드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합니다, 17.

그는 섭리의 일을 합니다, 17b. 더욱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시작, 만아들,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가장 높은 분, 그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분명히 그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의 인간성을 가리킵니다.

그는 처음에 어떻게 나왔나요? 다시 한번,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암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말하지만, 잠깐만요, 창조는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5~17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18장 이하에서는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태초에, 그분에 의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16.

18. 그는 이번에는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재창조는 지금의 재생과 마지막 날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부활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21에서 보았듯이, 그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모든 것, 창조와 새 창조에서 그가 첫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거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안에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느니라. 곧 그의 폭력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그의 신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고백합니다.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몸, 피, 성육신, 죽음을 가르치고 암시하며, 따라서 그의 인간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강의에서 하나님의 성육신한 아들의 인간성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6, 체계학, 케노이시즘 에 대한 비판 , 그리스도의 인간성, 골로새서 1:15-20입니다.